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4년 봄 제70권 1호



이슬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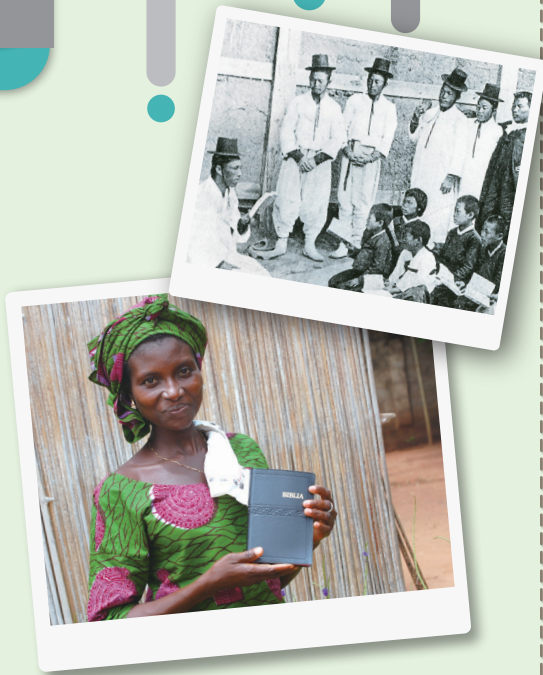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성서한국

2024 봄 제70권 1호

02 포토에세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04 커버스토리

이란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08 성경을 받은 사람들

가나 '성서주일'

10 2024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7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2 칠레를 위한 기도

칠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4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16 쿠바에서 온 소식

성경을 통해 쿠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8 현장 이야기

성경으로 글을 배웁니다

20 후원 이야기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1. 제140회 정기이사회 개최
2. 『나의 성경백과사전』을 발간하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4년 3월 31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 크메르어 성경을 들고 있는 레탓(Lethat) 목사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캄보디아는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성장한 레탓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캄락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우상, 물귀신, 산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들과 같이 온갖 잡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고,
현재는 저희 부족의 언어인
카베트어 성경 번역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믿고 바른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다른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말씀을 직접 읽게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란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이란은 정식 명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일 만큼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통계적으로 인구의 98%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선교와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개종할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인이 아닐 경우 수많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만 무슬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스카프)을 쓰는 것에 대해 반 이상이 반대하며, 법

적인 의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10%만 찬성할 뿐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호메이니 정권으로 이란 사회는 급속하게 보수화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1995년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60일간 감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종교 경찰'이 생겨나 히잡 미착용을 포함한 이슬람 율법 위배를 단속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이란에는 청년을 주축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여성의 삶,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성차별 정책과 이슬람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며 이슬람 공화국 종식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통제적이고 차별적인 문화나 분위기로 인해 이주를 택하기도 합니다. 이란 정부에서는 약 4백만 명 이상의 이란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를 내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지금까지도 이란인의 해외 이주는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란 *디아스포라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이란은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한 전 세계 '2024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 체제를 유지하며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을 이란의 이슬람교와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서방 국가의 시도로 간주합니다. 기독교 개종자 집단들의 지도자와 이들 구성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교파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체포당하고 기소당했으며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라는 이유로 장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 히잡을 착용한 이란의 여성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 이란의 폭력과 압박의 정도 (출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이란에 거주하면 종교를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지하 가정교회 형태로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이란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타국에서 난민 생활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5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부흥을 이루고 있

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는 불법이어서 걸렸을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가정교회는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투옥과 고문, 처형 당함에도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성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에 있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매년, 그리고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란 디아스포라성서교회 총무



▲ 세례 받는 이란 사람의 모습

이란 디아스포라성서교회는 이란 국내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란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에 성경을 보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급해하며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10)

신앙으로 인해 박해 받는 수많은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란 외 타국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성경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란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수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



▲ 페르시아어 성경을 받은 이란 어린이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란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가나 '성서주일'

▲ 가나 성서주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지난 2월, 가나성서공회는 2024년 성서주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읽기 마라톤, 성경 토론, 청소년 포럼, 라이브 감사 예배 등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2024년 주제는 「성경: 평화와 연합 그리고 발전을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가나성서공회 총무인 존 크웨시 아도 주니어(Rev. Dr. John Kwesi Addo Jnr) 목사는 “성경은 많은 영역에서 모두를 위한 평화로운 공존, 통일, 발전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권력과 부에 대한 이기

적인 욕망, 편애, 거짓과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을 통해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변화적인 만남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확립하고 이러한 인간의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로운 태도를 낳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히 12:14)’을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베풀고 연합을 유지하는 임무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존 크웨시 아도 주니어 총무는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질 것을 독려했습니다. “참된 평화와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여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가나성서공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어린이, 청소년, 트라우마 치유, 문맹 퇴치, 수화, 점자, 시각 장애인, 평화 유지)으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본 공회에서는 한국교회와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매년 가나에 성경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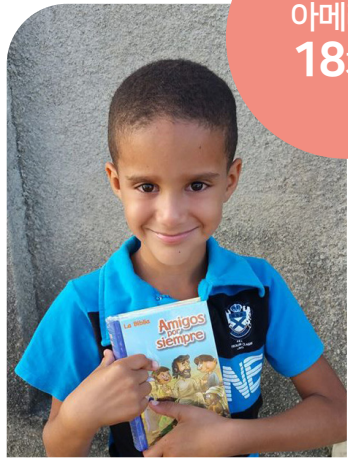


▲ 가나성서공회 총무 존 크웨시 아도 주니어(Rev. Dr. John Kwesi Addo Jnr) 목사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7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짧은 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4.03.07 기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아메리카
18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5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수단,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태평양
11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중동
23개국

걸프,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칠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난 2월, 남아메리카 칠레의 발파라이소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칠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최소 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강풍까지 겹치며 불길은 민가까지 번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이틀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칠레성서공회 프란시스코 비구에라(Francisco Viguera) 총무는 칠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칠레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많은 교회들을 포함하여

12,000채 이상의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120km 떨어진 발파라이소 지역을 중심으로 칠레 10개 지역에서 약 130명의 사망자, 수백 명의 실종자, 동물 사체, 160곳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칠레성서공회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자원봉사자를 통해 피해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며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칠레성서공회 프란시스코 비구에라
(Francisco Viguera) 총무

‘최악의 산불’로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쉴 곳도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허망하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름철인 칠레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며 극심한 무더위로 고통만 더해져 갑니다.

산불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칠레의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갖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제목

1.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칠레성서공회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산불로 타버린 칠레의 민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김정현(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부모님께서 저에게 갓난아기 시절부터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
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전서 개
역개정판』 시편 1:1-2)

지금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얼마
나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어
린 시절의 제게 성경은 어렵고 지루한 글자들
로 가득한 고대 문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를 들어, 유년기의 제게는 시편 1편의 ‘율법’이
라는 단어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의미가 마음
에 와 닿지도 않는 어려운 말이어서, ‘하나님
의 말씀’이겠거니 그 정도로만 짐작하며 성경
을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
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와 가르침을 닦아낸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
편』 시편 1:1-2)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개역개정』
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과 ‘율법
을 묵상하는 것’으로 나타난 구절을 좀 더 일
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성경을 비
교하며 읽으면서 ‘여호와와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
상’은 어떤 행위인지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왔
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묵
상해야 할지,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처럼 성경 속 어려운 표현을 지레

짐작하며 읽었거나, 성경의 어려운 단어와 어
투에 진입 장벽을 느껴 성경을 멀리했던 그리
스도인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한
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
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싶은 청년
의 입장에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
되는 나날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경의 언어들이 조금 더 익숙한 언
어로 풀어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너
무나 반가운 성경입니다.

최근에 법무보호대상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보호대상자란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
은 사람 중에서 갇혀 의지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
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낙인과 편견에 가로막
혀 더욱더 좌절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에게 부어진다면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법무보호대상자분들
과 대화를 할 때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
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짬맛을
되찾겠어요? 아무 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
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
힐 뿐입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마태복음 5:13)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
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마
태복음 5:16)

이 말씀을 듣고, 한번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
시는 분이 인상 깊으셨다며 성경책을 찾아보
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경우도 있었고, 한번
은 덕분에 힘을 얻었다며 더욱 열심히, 올바르
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
니다. 몇 마디밖에 나누지 못한 짧은 대화였지
만,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바라봐 주셨던 눈빛
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공허해 보이던 눈빛이
반짝이는 생명력으로 바뀌는 그 순간, 저는 하
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
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
떤 의미인지 더 알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에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삶의 지침
서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성경을 통해 쿠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쿠바성서공회 이사장 조엘 오르테가 도피코(Joel Ortega Dopico)

“약 25년 전까지만 해도 쿠바에서는 기독교라면 무엇이든 반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류 시민이었고,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58년부터 1995년까지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인내와 충성과 관련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쿠바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는 엄청납니다.

쿠바에서 성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쿠바에는 5만 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으며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증가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충분한 성경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젊은이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4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모든 교단의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어린이용 성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나 여름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을 통해 교회는 부모들과도 연결됩니다. 쿠바는 보통 3대가 한 집에 삽니다.

한 번은 아바나에서 700km 떨어진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3,0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성경 3,000

권과 교회에 보급할 성경 2,000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배 중간에 5,000권의 성경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주일에 차를 몰고 가는데 한 경찰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왔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저에게 성경을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5권의 성경책이 있었기에 5권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한 경찰이 저를 따라오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제가 일주일 전에 성경을 준 바로 그 경찰이었고, 그는 성경을 더 갖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토록 쿠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합니다.

많은 쿠바 사람들은 희망 없이 우울해하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통해 쿠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은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발전과 더 나은 무역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변영을 누리고 있지만,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쿠바는 복음을 위한 비옥한 땅입니다.”



▲ 쿠바 교회를 가득 채운 어린이들



성경으로 글을 배웁니다

▲ 라오스 문자교실에 참여하는 몽족 사람들

동남아시아 라오스 북부 지역에 있는 화일리엥(Huaylieng) 마을에는 몽족이 살고 있습니다. 몽족은 자신들의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라오스 북부 지역에 정착하여 그들만의 투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수는 라오스 인구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대다수인 4만 명이 기독교 인입니다. 하지만 몽족은 오랫동안 문맹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성인 여성의 40%와 남성의 20%는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라오스성서공회는 이 지역에 만연한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어와 몽족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여 몽족 전역에 문맹 퇴치를 위해 6년이라는 시

간을 투자했습니다. 문맹 퇴치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라오스성서공회는 성경을 교재로 사용하여 문자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몽족 사람들은 문자교실을 통해 성경으로 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신앙의 힘은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문자교실은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글을 배우며 삶이 변화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 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오(Bao)/문자교실 참가자

“많은 교인들이 읽고 쓰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 라오어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타우돔(Jumta-udom)/문자교실 교사

“우리 가족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3년밖에 공부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라오어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자교실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자교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콩(Kong)/문자교실 참가자



▲ 문자교실에 참여한 몽족 청소년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대전중앙교회 - 말라위 〈치체와어 성경〉 4,556부, 〈영어 성경〉 2,000부, 미얀마 〈미얀마어 성경〉 1,810부 기증

2023년 11월 23일,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의 후원으로 말라위에 〈치체와어 성경〉 4,556부, 〈영어 성경〉 2,000부, 미얀마에 〈미얀마어 성경〉 1,81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대전중앙교회 고석찬牧사는 “저희는 아시아 지역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장 멀리 있는 대륙 중의 하나인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서, 두 나라를 선정해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도 보급하고 현지 성서교회도 살려서 현지에 있는 성서교회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꾀하였습니다. 이런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말라위성서교회 아자르 무시탁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후원해 주신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갖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말라위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성서교회 코이 람 탕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경이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미얀마 사람들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말라위에 전달되는 〈치체와어 성경〉 4,556부, 〈영어 성경〉 2,000부는 말라위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얀마에 전달되는 〈미얀마어 성경〉 1,810부는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기증하는 성경을 들고 있는 유일한 집사, 노은혜 집사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그리스

유일한 집사, 노은혜 집사 - 그리스 〈그리스어 성경〉 2,370부, 〈그리스어 신약〉 4,500부 기증

2023년 12월 14일, 유일한 집사, 노은혜 집사의 후원으로 그리스에 〈그리스어 성경〉 2,370부, 〈그리스어 신약〉 4,5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성서교회 미카일 사치지아니스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의 교회와 사회에 부흥과 생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와 사이프러스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유일한 집사는 “성경을 나누는 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서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곳에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그리스는 유럽 연합(EU)에 속해 있지만, 이들 국가 중에 실업률이 가장 높고, 세계 주요국 아동 빈곤율에서 6위(2021, OECD)로 선정되어 유로존에서 빈곤한 나라에 속합니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가난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마약이나 폭력 조직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스에 전해지는 〈그리스어 성경〉 2,370부, 〈그리스어 신약〉 4,500부는 그리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후원받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서울베다니교회 성도들

생명의 빛이 되는 성경

서울베다니교회 -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성경> 2,300부 기증

2024년 1월 19일, 서울베다니교회(마성호 목사)의 후원으로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2,3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베다니교회 마성호 목사는 “저희들이 탄자니아에 2,300권의 성경을 보내는 것은 2,300개의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능력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전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탄자니아성서공회 알프레드 키몽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서울베다니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성경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될 때, 여러 악습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공동체에서 소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탄자니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남하하며 이슬람 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15세 이하 청소년들은 인구의 44%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양성평등, 폭력, 성 문제 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탄자니아에 전해지는 <스와힐리어 성경> 2,300부는 이슬람의 핍박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1. 제140회 정기이사회 개최



▲ 제140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 제140회 정기이사회가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부 기도회에서는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가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익현 사장의 사장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 이두희 총무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

건으로는 교단대표로 황순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재곤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조성봉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선임되었습니다. 찬성회원 대표로는 김경원 목사, 정명철 목사, 최규완 장로, 손덕현 목사, 이형로 목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광철영 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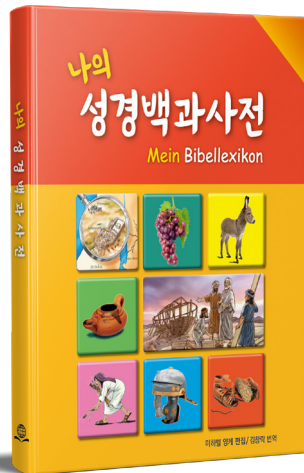
2. 『나의 성경백과사전』을 발간하다

본 공회는 2023년 11월 30일에 『나의 성경백과사전』을 번역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나의 성경백과사전』(Mein Bibellexikon)은 독일의 '성경 읽기 연합 출판사'가 '독일성서공회'와 '브룩 하우스 출판사'와 공동으로 만든 책으로, 교회, 학교, 가정 등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주제들이 1,500여 개 나오는데 다양한 사진, 그림, 이모티콘, 지도, 연대표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동물, 식물, 도시나 건물, 장소나 지역, 산, 일상생활, 절기와 종교, 신앙과 관련된 개념, 음식 등이며,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 알아두기, 퀴즈, 관련 성경 구절 등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와 초신자뿐 아니라 목회자,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 부모 등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 본문 미리보기(113~114쪽)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문의: 대한성서공회 반포부 02-2103-8847)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 핍박, 가정폭력, 빈곤의 문제로
수많은 지구촌 이웃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 내 주겠습니까?”
(롬 7:24 새한글)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구원,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